

# 해외서 날개피는 보잉737 맥스 국내 운항재개 '먼 나라 이야기'

추락사고 이후 계약 취소·수정  
사고 이전 도입 이스타항공 뿐  
AOC재취득·법정관리 걸림돌

외국 항공사를 시작으로 다시 운항에 나선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737맥스가 국내에서는 당분간 운항 재개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보잉의 항공기 737맥스는 지난달 브라질 최대 항공사인 골이 브라질 상파울루와 포르투 알레그레 노선을 비행하며 다시 운항을 시작했다. 연이은 추락사고로 인해 2019년 3월 약 40여 개국에서 운항이 중단됐으나, 21개월여 만에 다시 비행하게 된 것이다. 또한 유나이티드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각각 2월, 3월부터 737맥스를 활용한 항공편을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737맥스로 운영되던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와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항공기는 각각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 잇따라 추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모사망자가 발생하자,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해당 기종에 대한 운항을 전면 중단시켰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미국 연방항공청이 항공기 결함 보완 작업을 거친 737맥스에 대해 비행 재개를 허용하며 다시 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737맥스의 운항 재개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사실상 국내에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737맥스 항공기.

서 737맥스가 재운항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국적 항공사 중에서는 추락사고 이전 해당 항공기를 들여왔던 곳은 이스타항공 뿐인데, 현재 운항은 차치하고 법정관리 신청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전 노선을 잠정 중단한 이스타항공이 다시 정상 운항하기 위해서는 먼저 AOC(항공운항증명)를 다시 취득해야 한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문제가 됐던 비행 통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비롯해 핵심 비행조종 시스템에 새로운 안전장치도 추가해야 한다.

이스타항공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재 직원은 550여 명, 항공기는 6대 남아있다. 법정관리 신청 시기는 이달 말이나 혹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에 따르면 737맥스가 연이은 추락사고로 운항이 중단되기 이전 도입계약을 맺었던 다른 국적 항공사도 당분간 해당 기종을 들여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려 당시 도입 계약을 맺었던 항공사들은 계약 취소 등 일부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스타만 2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토부가 운항 재개를 결정해도 항공기 보유 업체가 미 관련 당국에서 말한 안전 개선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며 "실제 운항까지는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 일단 항공기에 대한 수리가 이뤄져야 하고, (이스타항공이) AOC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후 국제선의 경우 주변국에서 하늘을 열어야 최종적으로 운항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포스코, '합적배선' 시스템 개발·운영

고객사 소량화물 함께 선적

포스코가 수출 선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돕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포스코는 고객사의 소량 화물을 자사 물량과 함께 선적할 수 있는 '합적배선' 시스템을 개발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시범 운영중인 '합적배선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고객사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합적 가능한 선박 조회부터 신청까지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합적하기 위해 대형 화주나 선사에게 수시로 선적 일정을 확인하고 부탁해야 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합적배선 시스템'을 통해 42개 중소기업 고객들이 5만 6000톤을 합적했고, 총 11억원 가량의 물류비가 절감됐다고 밝혔다.

철강재를 가공해 수출하고 있는 오피석 한금 대표는 "포스코의 '합적배선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전보다 낮은 가격으로도 포스코와 동일한 수준의 운송 품질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받을 수 있다"며 "한달에 1~2회 주기적으로 선



포항제철소 제3부두에서 철강제품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포스코

적할 수 있고 선적량이 적어도 합적이 가능해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합적배선 시스템'은 중소기업의 애도 포스코와 선사 등 물류 밸류체인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포스코형 '스마트 상생제도'의 실천사례로 꼽힌다. 선사는 추가 물량을 유치해 매출을 늘릴 수 있고, 부족한 물량을 채우기 위해 타 부두로 이동하지 않아도 돼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포스코는 화물의 선적수량이 계약수량보다 부족해 발생하는 부적 운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

포스코는 고객사를 직접 방문해 시스템 사용 방법과 물류 솔루션 관련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최종합의 도달

단체협약 체결식 개최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손을 맞잡으며 '뉴삼성'에 한 발 다가섰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4일 아산1캠퍼스에서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지난해 12월 22일 단체협약안 109개 항목에 잠정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김범동 인사팀장과 김정란-이창완 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5월 26일 제1차 본교섭을 개최한 후 7개월여간 9번 대표 교섭과 본교섭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날 단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김범동 삼성디스플레이 인사팀장은 "대내외적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소통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

과 신뢰를 바탕으로 윈윈하게 노사 합의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상호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5월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 후 삼성전자 등 계열사는 노사간 상견례를 진행하는 등 개혁을 실천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 SK이노, LG 상대 美 특허무효소송 기각

美PTAB, 8건 조사개시 거절  
내달 결론 '배터리 소송' 관심

미국 특허심판원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미국무역위원회(ITC)가 진행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IPR) 8건에 대해 조사개시 거절을 결정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특허에 대해 전문적 판단을 하는 특

허심판원에 LG에너지솔루션의 SRS 및 양극재 특허 유효성 관련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조사개시 결정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시사비비도 가려보지 못하게 됐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특허심판원에 LG에너지솔루션을 대상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당시 양극재 특허 2건과 분리막 특허 3건에 대해 각각 특허무효심판을 4건씩 총 8건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30일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무효심판 8건 가운데 6건을, 이달 12일 나머지 2건에 대

해 조사개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판 절차는 무효심판 청구와 특허권자의 예비 답변서 제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 개시 결정을 비롯해 양측의 답변서 제출, 구술심리, 특허심판원 심판부(3인 합의체)의 최종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1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30일 조사개시 결정됐으며, 본 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3월 31일 이 같은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양성운·김수지 기자 ysw@

## LG전자, 휘센 에어컨 '로하스' 인증

LG전자 에어컨이 국내 최초로 '착한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LG전자는 최근 창원에서 생산하는 휘센 가정용·상업용 에어컨으로 로하스(LOHAS) 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최조다.

로하스는 한국표준협회가 2006년

부터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사회공헌적인 노력과 성과를 보인 기업 제품과 서비스에 부여하고 있다.

LG전자는 ▲고효율 제품 개발 ▲제품의 환경 유해성 개선 ▲생산과정의 폐기물 및 제품 사용 후 폐제품 관



대한민국로하스인증

로하스 인증 마크

리 ▲온실가스 감축 등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재용 기자

## 포스코에너지, 광양 LNG터미널 설비 확장

20만kl 용량 6탱크 증설

포스코에너지가 LNG 수요와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광양 LNG터미널 설비 확장에 나선다.

포스코에너지는 14일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LNG터미널에서 6탱크 증설 공사의 성공을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신은주 포스코에너지터미널사업실장, 김철관 포스코건설 화공사업실장, 권경환 포스코ICT SmartEIC사업실장, 김상익 포스코A&C 플랜트CM사

업실장 등 필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화해 진행했다.

이번에 증설하는 6탱크는 20만kl 용량으로 약 1437억원을 투자해 2024년 5월 준공 예정이다.

6탱크가 준공되면 광양 LNG터미널의 저장 용량은 현재 운영 중인 1~5탱크 73만kl에서 93만kl로 확대된다.

특히 6탱크는 5탱크 건설 때와 같이 포스코그룹사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 협업을 통해 건설될 예정이다.

포스코가 세계 최초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LNG 탱크 내조 소재용 고강도 강과 고강도 강재(STP550)를 적용한다.

/김수지 기자